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기도서 320 면(B해)

제1독서 : 출애 24, 3-8
제2독서 : 히브 9, 11-15
복 음 : 마르 14, 12-16. 22-26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마르 14, 22b. 24a)

□ 감 론



구원의 신비가 여기있다

서 석 기 신부

작열하는 유월의 태양별은 예수 성심의 사랑을 상징함 이어라!

6월은 예수 성심의 달이다.

사랑이 메마르다 못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이 세대에 차고 넘쳐흐르는 주님의 사랑의 교환을 깊이 생각해 보는 달인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아 주셨다. 모든 인류가 나눠 먹음으로써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당신과 인류 사이에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체는 구원의 약속이기도하다.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어 자기의 삶과 피를 빼어 나눠 줄만한 사람이 있을 것인가?

인류의 역사는 물고 물리우고, 뜯고 뜯기우는 살벌한 싸움의 연속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처절한 싸움의 반복은 계속될 것이다. 같은 시대에 사는 이 지상에 하루에도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지못해 죽어가고 있는가. 진정, 가진바를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 너무도 절실한 이 시대에 당신의 삶과 피를 우리 구원의 양식으로 기꺼이 내주신 주님의 사랑은 인류에게 커다란 교환이 아닐 수 없다.

피는 구약에서 생명의 근원으로써 속죄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죽어 마땅할 죄의 용서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바르고 뿌림으로써 속죄와 용서를 빌었던 것이다. 또한 피의 희생은 생명과 재산의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보았다느니, 출혈을 했다는니 흔히 사용하기도 한다.

주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양식으로 주시고 생명의 표상인 당신의 피를 흘리시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약속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과 피를 같이 나누는 모든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생명의 혈연을 맺어 주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삶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자.

지금 이 순간, 이 미사중에 사제의 손으로 이뤄지는 성체와 성혈의 사랑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고 무한한 감사와 찬미를 모아 바치면서 그분의 사랑을 본받도록 결심하자.

주님의 성체와 성혈- 구원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안 주임신부)



국회, 이대로 좋은가!

한 젊은 야당의원의 국회발언이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민중」이라는 용어, 「개혁이 아니면 혁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등의 표현이 주로 문제가 된 모양이다. 신문에 단편적으로 보도된 바를 읽은 느낌으로는 여당의 과민반응으로 와 닿는다.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과거의 찌꺼기인 「위협수위」나 「성역」이니 하는 말을 벗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변칙특권의 참뜻은 무엇인가?

우리 헌법 제81조는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한 면책(免責)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 면책특권은 의회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를 확정한 것이다. “이것은 의원에 이와같은 발언·표결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중세기 등족회의 대표가 선거인제급의 의사의 전달기관에 지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한 결별을 선언하고, 현대 의회의 중대한 사명인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반영의 기능을 완수시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문홍주, 한국헌법 518쪽).

국회가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운영되었으면 한다. 허심탄회하게 할 소리를 하고, 또 견해가 서로 다를 지라도 인내롭게 들어주는 풍토가 아쉽다. 적어도 의회의 사명이 정부에 대한 비판기관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말이다.

민주정치는 풀기 어려운 매듭을 이성과 대화로 성의를 다해서 풀어야 한다. 계명론·국회운영중단론·전북부운운하는 친위대 같은 인상을 주는 발언이라든가 몇몇 의원들의 욕설, 참으로 듣기 거북하다.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말할까? 국민학교 선생님들은 이럴 때 고운말 쓰기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순정이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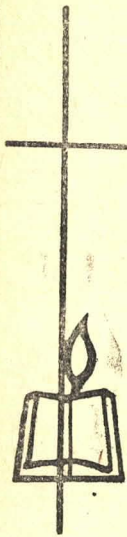


주님과 일치하는 모임이었다

성서교설 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마태 29:19



이 대목의 내용(마태 28:16-20)은 세계전도에 관한 것으로 결코 마태오복음의 독특한 내용만은 아니다. 루카복음의 유언, 요한복음의 21장(章)도 그런 내용이다.

「이름으로」하는 말은 원문(原文)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다, 하나는 「에이스·또·오노마」이고 다른 하나는 「엔·또이·오노마며」이다. 후자는 세례 때 수세자 또는 세례자 아니면 쌍방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전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속관계」에 들어 감을 말한다. 본문(本文)의 경우는 전자로 표현되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의 의식(儀式)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에이스·또·오노마」가 일러준 대로 성삼위께 완전히 중속되어짐을 깊이 의식(意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확신과 그 체험의 생활이 적어도 세례 때부터 영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찬은 신앙에 의해서 구원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 때 입신(入信)의 「표지」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는 「신앙의 발실」(베전 3:21)이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세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가르쳐라」(20절)는 말은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에 한한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계속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가르쳐라는 내용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에서 복음을 전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행2:16 이하).

청소년 특집①

*** 모델을 찾는 청소년 ***

청소년의 해(年)다.

청소년—하던 으레 문제라는 말로 예사로 혹은 너무 쉽게 단정해 버린다. 오늘날 청소년은 과연 문제인가? 그들을 좀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 줘야 할 것이다.

앞으로 5회에 걸쳐 청소년에 대한 특집으로 같이 생각해 본다.

—편집자 주—

□교회가 주력해야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학생에서 결혼 전까지 15세에서 25세 사이에 해당하는 남녀로서 그 신분도 가지각색이다. 노동자나 학생이 있는가 하면 노동자도 학생도 아닌 이들도 있다.

청소년은 자신의 어떠한 신분에서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갇힌 욕망을 온전한 사람의 모델을 주변에서 탐색해내는 것이다. 청소년 사목자는 청소년들에게 그 모델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청소년 앞에서 어른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림으로써 청소년들은 대화 상대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 교육의 실정 또한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주입되고 있다.

청소년의 머리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조화롭게 연결해 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일진대 학교, 정부에서 이런 배려가 없으므로 교회가 특히 주력해야 한다.

□장벽없이 같이 놀 줄 알아야

사목이란 정신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신앙이란 바탕이 필요하다. 청소년 사목도 사목의 일부이므로 청소년 사목을 담당할 사람이라면 항상 한걸음 앞서 있으면서도 그들과 동반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

청소년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안된다.

교육자 또는 신부라는 신분이 구분되어서도 안되며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본당 신부, 또는 교리교사는 그들이 아무런 장벽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한 발 앞서 가며 유대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런 가운데서라야만 어떤 이론의 주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온전한 사람의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사람이 내게 큰 것을 주는 분이구나, 또는 내게 봉사하는 이구나, 이상적인 사람이구나, 우리를 이해하는구나”라는 느낌을 갖기까지 지탱이 되어 주어야 한다.

—윤루가 신부님 말씀 중에서—

- 혼수(회갑)웃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벤지

도매상

서울주단

☎ 03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복합상가

김제 쌀 상회

각종 곡물류·연탄·소금

전화 ⑧ 9505

김종환치과의원

신라당

원장 김종환 (안드레아)

전주시 경원동 3가 50-4

T. 6-7744

주택은행 옆 신라당 건너편

교 구 소 식

- ☆ **축! 견진** : 창인동 천주교회-16일 오전 공식미사 중, 주례-박정일 주교님
1. 사제연수회 : 12일(수) 오전 10시30분
 2. 50주년 기념 상임위원회 : 13일(목) 오전 10시
 3. 교구 신용혈동조합 창립총회 : 12일 오후 4시, 장소-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참가대상-교구 제위 신부님, 각 기관장 및 단체장
 4. 교리교사 교구, 지구 임원 및 각 본당 회장 6월 모임 : 10일(월) 6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준비물-여름 하계 교리교재 신청서
 5. 군중후원회 야외미사 : 6월 11일, 장소-국군묘지, 야외미사 겸 단합대회를 하오니 많은 회원 참석 바람
 6. 교구 전체 전모임 : 오늘 오후 2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교육관
 7. M·E 소개모임 : 6월 15일 오후 2시30분, M·E 9차 재모임 : 6월 15일 오후 3시
 8. 하나회 모임 : 6월 16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사회복지 회관
 9. 남자 성소자 모임(고·대·일반) : 일시-6월 16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10. 6월중 교미씨움회의 개최 : 일시-6월 16일 오후 2시, 장소-전동 천주교회
참가대상-각 꾸리아 간부 및 직속 브레시디움 간부 전원
 11. 교구단위 성령기도회 개최 : 일시-매주 수요일 오후 8시~9시
장소-가톨릭센터 성당, 참가대상-성령세미나 받은 모든 분들
 12. 특강-레크레이션의 이론과 실제 : 일시-6월 29일(토) 오후 2시~6시
6월 30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가톨릭센터 강당
접수-6월 25일까지 교육국 및 안내실(☎0041~3)
강사-서울 '영' 레크레이션 연구실 실장 오경운, 강사-왕현모, 수강료-5천원
 13. 베델서서 개강(속편) : 12일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수강료-2만원, 교재대-1만5천원, 주최-교육국(☎0041~3)
 14. 군·육지구 가족묘지 분양지 현지답사 : 오후 1시까지 팔마성당에 집결
- ✿ **축! 영명** : 성 바르나바(11일)-박영규 신부
성 안토니오(13일)-권영균 신부, 양재철 신부. 축하합니다

♣ **잠 간!**

아버지를 뵈오러 가는 날-
머리 감아 빗고, 비단옷은 아니지만 깨끗이 빨아 곱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나섰던 옛 선조들의 순한 신앙심이 그림다.
초여름, 점점 무더워진다.
술리퍼 끌고, 흰히 보이는, 또 소매없는 초미니(?) 복장으로 미사 참례하며 하느님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 시대- 글썽하다, 뭔가 불효스런 심정으로 부끄럽다.
우리 한번쯤 생각해보자.

요십이 (618) 김병오



바퀴벌레, 개미, 거미, 벼룩,
파리, 모기박멸

전라북도 지정 관허 대한 방역공사

전주 ☎6037 • ☎2455
(72)3925(야)

경주 ☎8552

손 기 영(안드레아)

김 희 진(미카엘)

관공서, 학교, 병원, 아파트,
주택, 정원, 축사, 차량, 빌딩,
여관, 목욕탕, 식당, 다방, 공장,
창고, 기숙사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 • 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모니아)

사 원 채 용

남 : 대졸 2명, 화학과, 농
화학과, 생물학과, 미
생물학과

여 : 고졸(여성) 1명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
특등본

대한 방역 공사

전화 ☎6037 • ☎2455

(전주국교 사거리)

마기환 안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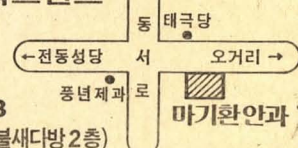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안과전문의 마기환

한 남 희(비리시타)

TEL. 75-2203

(시집가는날, 태극당건너편 불새대방 2층)



제 I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충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옹 태
사무실 2-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수녀원 " 사도회장 이 흥 재

1. **축! 어린이 영세식:** 오늘 오전 9시30분 어린이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2. **전자올겐 기금 신입:** 본당의 전자올겐 구입이 시급합니다, 모든 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1구좌에 5,000원
 3. **영세자 모임:** 16일 공식미사 후 5월 26일에 영세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어린이 첫영성체:** 오늘 공식미사 중에 합니다
 5. **모내기 봉사활동:** 16일 금상리(교회포지 앞)에서 참가하실 단체나 개인은 오늘중에 신청하세요 본당에서 차량을 제공합니다
 6.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7. **예비자 입교식:** 30일 오전 10시 주님을 모른 이웃에 복음을 전할시다
 8. **공소 순회미사:** 15일 저녁 8시, 다리리공소
 9. **금주전례:** 제2조, 차주는 제3조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372,830원 **교무금:** 255,000원
지난주 신축금: 101,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1. **축! 영명:** 13일 권안토니오 본당신부님 축하미사-11시 축하식 미사후 많은 기도와 협조 바랍니다
 2. **견진성사:** 23일 공식미사-박정일 주교님 견진자 신청 다음주일까지(세례증명서 1통) 견진교리-낮반 10~수녀님, 저녁반-8~신부님 견진비-2000원(사진대 포함)
 3. **예비자교리:** 주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저녁 8시
 4. **반회합:** 20일 저녁 8시, 저녁미사 없음 다3반-신부님(신영애), 다1.2.3가-이수녀님(고봉림), 중1반-김수녀님(정운주)
 5. **금주모임:** 꾸리아 회합-오늘 오후 2시, 성우회-오늘 공식미사후, 빈첸시오 회합-오늘 꾸리아 회합후
 6. **중·고학생회 소풍:** 16일, 장소-단산 종화탑 (인터체인지)
 7. **금주 청소:** 월-평화의 모후, 토-구세주의 모친 차주 " : 월-사랑하오신 어머니 토-순결하신 어머니
 8.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정동민 ②정운주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이갑진 ②신영희
- 지난주 봉헌금:** 209,9900원 **교무금:** 556,60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도회장 이 정 우

1. **농번기에 수고많으십니다:** 친주님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주일미사를 절대로 결하지 맙시다**
3. **본당살림에 관심을 가집시다** 교무금 납입이 저조합니다
4. **공동체 캠페인:** 인사를 잘하고 남의 말을 하지 맙시다

5. **예비자교리:**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있음
 6. **6월 구역형제회는 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5,840원 **교무금:** 45,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사도회장 김 낙 균
유치원 2-2276

1. **예비자 교리실시**
남자반-매주 수요일 저녁 8시30분
일반인반-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직장인반-화요일 오후 8시30분
중·고생-일요일 오후 6시
 2. **모임: 반장님 월례회**-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성심회: 13일 오후 2시
성모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울뜨레야: 20일 오후 8시
 3. **신학생 후원금 신입:** 김수길·이원희-각 1구좌, 김길순-1만원, 누계-71구좌 감사합니다
 4. **미사시간 일부 변경**
토요일 오후 7시-특전미사 겸 중·고 제미사
 5. **차주전례:** 해설-김광수·문미옥
독서-①박형식 ②김나섭, 기도-자모회
- 지난주 봉헌금:** 일반-361,580원 주일학교-2,940원
중·고-11,430원 계-375,950원 **교무금:** 217,6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콘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1. **자모회:** 공식미사 후
 2. **성화회·교미시음:** 다음주
 3. **첫영성체 교리:** 10일부터 오후 5시~6시
대상-국민학교 3학년 이상
 4. **20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참여합시다**
김선애-3만원, 조미령·최순남-각 2만원, 이영철·이연순·박정순·이명-각 1만원 감사합니다
 5.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영희, 독서-①최병래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서정옥, 독서-①이종두 ②박종훈
저녁미사: 해설-고옥희, 독서-①최종만 ②최원일
- 지난주 봉헌금:** 1,022,620원 **교무금:** 675,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수녀원 2-4804

1. **축! 영세(64명), 견진(173명):** 사진(1,500원) -사무실
 2. **교육관 신축:** 전진자의 기도와 힘을 모읍시다
 3. **예비신자 모집(6월 한달)**
준비물-①신·구약성서 ②성가집 ③초대받은 당신 ④기도서
 4. **주부성서 대학:** 이사야 21~41장
 5. **회의:** 글라라회-오늘
성모회·울뜨레야-다음주
 6. **구역기도처:** 우진아파트 1동 402호(이월남 맥) 13일 10시
- 지난주 봉헌금:** 542,620원 **교무금:** 289,500원
건축현금: 30,000원